

목어

느림의 삶 '두배 만족'

인생을 흔히 마라톤에 비유한다. 시간은 걸리지 만 전 구간을 완주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아니면 구간별 신기록을 세우고 완주를 포기하는 것이 좋은가? 이런 평면적인 비교는 사실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인생을 짧고 짧게 살 것인가 아니면 느리더라도 완주를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좋을까?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는가에 따라서 선택도 달라질 것이다. 요즘을 영화를 보면 화면 전개 속도가 무지하게 빠르다. 영화를 자주 접해 본 사람이 아니면 전체의 흐름을 파악하기가 힘든 경우가 많다. 옛날 영화를 지금 감각으로 보면, 극중 배우의 행동이 있기 전에 이미 관객들이 짐작할 수 있을 만큼 느리다. 영화뿐만이 아니다. 길거리를 나서 보면 무엇이 그리 바쁘지 하나 같이 잔뜩 움직인다.



딱히 뚜렷한 목표를 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남들이 그러니 나도' 하는 생각으로 된다. 사회가 또 그렇게 뛰도록 다그친다. 옆도 돌아보지 않고 목표로 삼은 정상에 있을 때, 사람들은 과연 만족할 것인가? 그렇지 않다. 높고 강하고 빠른 것에만 습관된 사람들은 계속 진행형으로 있어야 불안이 적다. 그런 최고 일등 최강에 집착하여 자신을 다달하면 여간 피곤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은 쉬어가면서 일할 것과 여가를 선용하라는 충고를 주지만 그런 쉽거나 여가 조차도 최강 일등 최고로 지내려고 한다. 습관이 다. 한 템포만 늦추어 보면 보이는 것도 많고 즐길 수 있는 것도 많고 만족할 것도 많다. 중독된 습관처럼 내달면 어떤 그런 여유로움을 가질 수가 없을 것이다. 여유로움이란 다음의 집중적인 투자를 위한 저축이요 생체리듬을 복돋우는 영양제 역할을 할 것이다. 가만히 정좌를 해 보자. 조용히 숨을 고루어 보자. 하루에 한번쯤이라도 이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면 우리는 두배의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다. 느리더라도 완주할 수 있는 나를 가꾸어 보자.

이근후 (열린마음 클리닉 원장)

해인사 선방 수좌들의 실상사 폭력을 계기로 종단 내 폭력 근절을 위해 7월5일 '수행자들의 발로참회와 거듭남을 위한 21일 단식기도 정진'에 들어갔던 도법(실상사 주지 수경(지리산 살리기 상임공동대표) 연관(화엄학림 학장) 스님 등 5명의 실상사 스님들이 25일 오전 단식기도 정진을 회향했다.

5명의 스님들은 7kg이상 체중이 주는 등 지친 기색이 역력했지만 눈빛은 오히려 평화로웠다. 반목과 질시, 폭력과 분열은 어떤 명분으로도 발붙일 수 없어야 한다'는 간절한 발원으로 채웠던 3주간의 시간. 단식기도 정진 회향식이 봉행된 7월 25일 실상사에서 도법·수경 두 스님을 만났다.

"출가정신 원력 다시 세울때"

21일 참회 단식 정진 회향

실상사 도법-수경 스님

인터뷰

▲단식기도를 회향한 소감은.

도법스님= 35년 동안 집집 생활을 하면서 불교가 지향하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이번 단식을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갈등과 대립을 해소시키면서 성숙된 분위기를 만들어 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참회 단식 기도는 우리 자신과 종단의 오랜 고질적 병폐를 반성하고 극복하기 위해 시작한 것이다. 폭력문제는 종단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고, 결국은 우리 자신이 극복해야 한다고 믿는다. 실상사에서 지닌 작은 불씨가 이 문제를 극복하는 계기가 되기를 염원한다.

수경스님= 중 노릇을 잘못했다. 한 두 사람 바르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은 아니다. 모두가 바르고 깨우쳐야 한다. 그렇지 못한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다. '현대불교신문'에 기고한 글에 다소 격한 표현이 있었다. 정진기간 동안 참회하고 또 참회했다. 하지만 대를 건립에 대한 반대소식은 지금도 변함이 없다. 이번 문제가 교단 내에서 올바른 방향으로 정

착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문제를 푸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발로참회 단식기도를 택한 이유는.

도법스님= 불교에서 정의내리고 있는 선은 양쪽이 함께 변화하고 유익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 발로참회는 모

수경 스님

“ 기고문의 격한 표현 정진중 참회 '대물' 반대 변함없다 ”



도법 스님

“ 발로참회 단식기도 승패논리 아닌 승가발전 모색시간 ”



▲종단 내 폭력문제의 원인과 대책은.

수경스님= 수행자가 수행자답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다. 우리 교단은 해방전후로 여러차례 갈등을 겪어왔지만 불교적 방법으로 푸는 지혜가 없었다. 그런 과정에서 수행풍토도 흐트러지게 되고 결국엔 폭력이 빈발하는 상황까지 오게 됐다. 집단 안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다만 불교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



◇도법(오른쪽)·수경 스님이 7월 25일 오전, 21일간의 참회 단식기도정진을 마치고 화엄학림 강당을 나서고 있다. 사진=고영배 기자

하는 전통이 이어져 왔다면 이 지경까지 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가장 시급한 일은 수행풍토를 바로 잡는 일이다. 수행자가 수행자 다워질 수 있는 길을 찾아야 한다. 종단 차원에서는 제도적으로 폭력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보완할 것은 보완해야 한다. 사부대중 모두가 거듭나려는 배아픈 성찰이 있어야 한다.

▲무너진 수행풍토를 우려하는 대중들이 많은데.

수경스님= 사실이다. 승단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 우리 사회는 지금 매우 어려운 지경에 처해있고 힘겹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다. 그런데 우리 스님들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출가 본연의 뜻이 흐려지고 있다. 한국불교의 회향은 출가정신의 원력을 다시 세우는데 있다. 모든 것을 다 버

려야 한다.

▲회향문에서 폭력병폐 근절의 가능성이 분명하지 않을 경우 각고의 행동을 계속하겠다고 했는데 무슨 의미인지.

도법스님= 폭력문제를 근절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기 위해서는 종단의 관심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재가자들의 움직임만 있을 뿐이다. 그래서 안 된다. 종단은 물론 수좌들도 문제의식과 해결의지를 가져야 한다. 종정스님과 총무원장 스님이 직접 나서서 본사에 촉구 하고, 수좌계에서도 명예회복에 나서길 기대한다. 이번 단식 참회 정진이 불교의 고질적 병폐를 극복할 수 있는 전환점이 되길 기대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단식 참회기도와 유사한 다른 방식이든 계속해 방법을 찾을 것이다.

실상사=한명우 기자

"폭력 더 이상 안된다" 재가 발원

'비폭력문화 정착 추진위' 발족 의미

조계종 중앙신도회, 포교사단, 참어불교재가연대, 대불청, 전국 불교산악인연, 인도라망생명공동체, 전국교사불자련, 대불련, 전국불자교정인련 등 16개 불교 단체 대표자들이 7월 24일 서울 호텔에서 백정기 중앙신도회장, 김기병 포교사단장, 박광서 재가연대 상임대표 등 3인을 공동 상임대표로 선출하는 등 '비폭력 문화 정착을 위한 추진위원회'에서 추진위를 구성한 것은 불교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간주되고 있는 폭력문화를 근절하기 위해 재가불자들이 처음으로 나섰

다는데 의미가 있다.

추진위가 미리 배포한 청원서에서 "원시적 원력과 토론을 통한 공의수렴 및 의사결정의 절차를 무시하는 풍토를 일변시키고, 교단차원에서 사회적 폭력과 증오심의 극복을 위한 문화적 기풍을 선도해 갈 것"을 승가에 촉구한 것은 출·재가의 위상이 현격 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한국불교계에서 이례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특히 조계종 공식 기구인 중앙신도회, 출·재가의 교량역할을 하는 일선 포교사들의 모임인 포

교사단이 주도적으로 단체를 구성하고 한 목소리를 낸 것은 출·교단 자체의 힘으로는 이런 폭력근절이 불가능하다는 상황 인식 때문이었다.

물론 추진위의 발족은 실상사 스님들의 목숨을 건 21일간의 '폭력근절 참회단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재가자들이 나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더 이상 물리적 언어적인 어떠한 폭력도 용납되어서는 안된다"는 불교사적 반성이 주요했다. 해방 이후 일제식민지 잔재의 청산과 불교정화운동, 최근 종단개혁과 쇄신운동에 이르기까지 정화와 개혁의



◇7월 26일 발족식을 가진 '비폭력문화정착을 위한 추진위'.

과정의 격렬한 진행만 까닭에 인내하는 토론과 대중적 공의에 수순하는 불교 본연의 수행풍토가 쇠퇴했다는 심각한 문제의식이 그것이다.

1954년 정화불사로부터 94년 조계종 개혁불사, 98년 조계종

분규사태에 이르기까지 폭력의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이 '폭력은 폭력을 낳는다'는 불교적 인과를 보여준다는 판단도 외면할 수 없는 일이었다.

때문에 추진위는 부처님께서

가르치고 정하신 포살(佈薩)의 정신에 의거해 '폭력문화의 극복과 평화와 상생의 문화회복'을 절실한 과제로 채택했다. 나아가 교단차원에서 사회적 폭력과 증오심을 치유하기 위한 문화적 기풍을 선도할 것도 촉구하고 있다. 폭력 불감증은 교단내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나아가 전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무자비한 전쟁의 씨앗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추진위가 출가교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오히려 스님들의 각성을 촉구하고 불교본연의 비폭력 평화주의를 회복하는 밑거름이 될 수 있을지는 참여자들의 순수한 원력과 불자들의 성원이 있어야만 가능한 일임에 틀림없다.

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1994년 10월 15일 창간
 발행·편집인 : 김광삼 등록번호 다-3379
 인쇄인 : 김규석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www.buddhanews.com
 www.buddhapia.com
 www.mahamall.com.kr
 www.yosiamun.com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서울시 중로구 경지동 110-33 ☎110-170
 구독료: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일본의 역사 왜곡 교과서 수정불가 입장에 대한 대한불교조계종 본사주지연합회의 성명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대한불교조계종의 24개 교구본사 주지들은 일본 정부가 역사를 왜곡한 교과서를 수정하라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의 정당한 요구를 거부하고 왜곡된 교과서를 일본 국민들에게 배포하는데 대하여 깊은 우려를 표하며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힌다.

1. 우리는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통해 일본의 국민들을 교육시키고자 하는 것은 매우 잘못된 결정으로 일본뿐만 아니라 인류에게 지극히 불행한 일이며, 국제사회에서 책임있는 역할을 수행하는 입장도 아니라고 지적한 지난 4월 3일 대한불교조계종의 입장을 재확인하는 바이다.
2. 우리는 일본 정부가 과거의 침략 행위를 정당화하는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수정하라는 우리나라와 주변 국가들의 요구를 무시한 채 수정 불가 입장을 통보해온 것에 대하여 이천만 불자들이 함께 깊이 우려하며 일본 정부의 반역사적, 반평화적 행위를 준엄하게 경책하고자 한다.
3. 우리는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재검정할 것을 요구하며, 일본 정부가 우리의 정당한 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이천만 불자와 함께 엄중대처할 것을 천명한다.
4. 우리는 우리 정부에 일본 정부가 왜곡된 역사교과서를 시정할 때까지 일본문화 개방 유보 등 확실한 대책을 추진하고, 이웃 나라와 연대하여 일본이 과거 침략사를 참회하고 인류 평화의 대의에 동참하도록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불기 2545(2001)년 7월 24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본사주지 연합회

결 의 문

우리 조계종 교구본사 주지 일동은 최근 일련의 사태에 일부 스님들의 집단적 행동으로 사찰 기물을 파손하는 등 어떠한 명분이나 이유이든 물리적으로 저지른 행위에 대해 심각한 우려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우리는 금번 교단에 실망과 충격을 주었음은 물론 사회적 파장까지 몰고 온 중대사안이라 간주하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뜻을 천명하는 바이다.

- 첫째, 승가는 물리적으로 완력적인 행위에 대해 깊이 각성하여야 할 것이며, 중도들은 적극적인 관심과 의지로 물리적으로 완력적인 사태를 근절하는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 둘째, 총무원은 중현종법에 따라 물리적으로 완력 행위를 엄정히 처리하여 확고한 재발방지의 기강을 세워야 할 것이다.
- 셋째, 종단의 입법기구는 상습적이거나 집단적이며 물리적 행위자가 교단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관련 종법을 대폭 강화하여 교단이 안정속에 수행과 교화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 넷째, 승가는 초발심의 자세로 돌아가 부처님의 자인(慈忍), 불해(不害)정신을 체득하여 부처님의 정법을 세울 수 있도록 다함께 불퇴전의 정진을 해야 할 것이다.

불기 2545(2001)년 7월 24일

민족문화 수호를 위한 본사주지 연합회